

보도선전활동에서 신뢰성과 친절성보장을 위한 중요문제

리 광 혁

력사의 온갖 풍파와 시련을 과감히 헤치며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오늘의 현실은 주체의 사회주의언론의 위력을 그 어느때보다도 비상이 높여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신문, 통신, 방송을 비롯한 출판보도물이 건전하고 위력하여야 사회주의사상진지가 튼튼히 다져질수 있으며 우리 혁명이 생기와 활력에 넘쳐 힘있게 전진할수 있다.

보도선전의 위력을 보다 강화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보도활동에서 신뢰성과 친절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매 시기 제시되는 당정책도 대중이 스스로 공감하고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일수 있게 론리정연하고 설득력있게 해설선전하여야 합니다.》

보도선전에서 신뢰성과 친절성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하게 제기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본성적요구이기때문이다.

출판보도물은 광범한 대중을 위하여 만들어지는것만큼 어디까지나 그들이 기다리며 즐겨보고 읽을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반영하여야 하며 쉽게 리해할수 있도록 글을 쓰고 편집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에게 참답게 복무하는 신문, 방송은 언제나 불패의 위력을 발휘하지만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외면하는 신문, 방송은 인민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배척받게 된다. 그러므로 출판보도물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존엄있고 무게있게 대하면서 자기 활동에서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보도선전에서 신뢰성과 친절성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하게 제기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보도선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기때문이다.

보도선전은 아래 단위들에 명령, 지시 같은것을 내려보내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신문, 방송을 보고 듣도록 하여 교양적이며 동원적인 목적을 이룩하는 선전선동사업이다.

출판보도물에 대한 사람들의 감수와 반응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신문, 방송의 실효가 좌우된다. 어떻게 하면 보도물의 편집내용과 형식을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꾸림으로써 그들이 신문, 방송을 즐겨 보고 듣게 할것인가 하는것은 비단 신문, 방송의 구독률이나 시청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강성국가건설투쟁으로 불려일으키는 출판보도물의 선전적위력, 인식교양적효과에 관한 문제이다.

아무리 출판보도물에 좋은 내용을 많이 담는다고 하여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듣으려 하지 않거나 믿지 않으면 실효문제에 대하여 론할수조차 없게 된다.

무엇보다먼저 보도선전에서 신뢰성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보도선전에서 신뢰성을 보장한다는것은 보도선전을 사람들이 스스로 공감하고 믿을수 있도록 진실하고 실감있게, 생활론리와 리치에 맞게 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보도선전을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객관적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주입식으로 진행할 때 출판보도물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떨어지게 되며 이렇게 되면 출판보도물이 시대의 사상적기수, 생활의 길동무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수 없게 된다.

보도선전의 신뢰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진실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이다.

보도선전에서 진실성을 보장한다는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믿을수 있도록 솔직하고 실감있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공감과 믿음을 주지 못하는 선전은 군중의 심금을 울릴수 없으며 사람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으로 불러일으킬수 없다.

글을 인위적으로 꾸며서 쓰게 되면 기사, 편집물들이 진실성을 잃게 되며 자연히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보도선전의 신뢰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이다.

보도선전에서 과학성을 보장한다는것은 보도선전을 리치와 사실에 맞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군중은 당정책의 본질과 정당성을 정확히 인식할 때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펼쳐나서게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선전은 어디까지나 원리적으로 리치에 맞게 하여야 한다.

선전에서의 과학성은 과학적인 자료에 기초할 때에 보장된다.

사람들은 출판보도물에 실리는 모든 기사, 편집물의 내용을 과학으로, 정설로 믿으려 하기때문에 보도선전에서 과학성을 보장하는 문제는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품위와 관련되는 중요한 정치성문제로 된다. 그러므로 기자들은 보도활동을 철저히 현지에 나가 보고 듣고 느끼고 확인한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여야 한다.

과학성이 보장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글을 쓰고 편집물을 만들게 되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게 되며 출판보도물이 자기의 전투적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보도선전의 신뢰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보도의 객관성을 보장하는것이다.

보도는 어디까지나 객관성을 떠면서 모든것이 진실감이 나게 되여야 한다.

보도의 객관성을 보장하자면 사회발전의 합법칙성과 현실을 무시하고 선전하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 자연뿐아니라 사회도 객관적법칙에 따라 변화발전한다.

객관적법칙은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어내거나 없앨수 없다. 기자, 언론인들이 객관적법칙을 무시하면 주관주의에 빠지게 되며 이렇게 되면 보도선전의 신뢰성이 저절로 떨어지게 된다.

보도의 객관성을 보장하자면 보도에서 기자들이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유도하거나 연출하는 경향을 극복하여야 한다.

사실, 사건을 전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주지 않고 기자가 의도적으로 대상을 유도하거나 연출을 하는 경우 보도의 객관성을 보장할수 없으며 기자의 주관적의도와는 달리 실효를 원만히 거둘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 보도선전에서 친절성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보도선전에서 친절성을 보장한다는것은 대중이 알고싶어하는 문제를 가지고 누구나다 이해할수 있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보도선전에서 친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대중이 알고싶어하는 문제를 취급하여야 한다.

사회적존재인 인간은 매일 매시각 자기 자신뿐아니라 주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사실, 사건들에 관심을 가지며 그것을 알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보도적기능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에 도움을 주는 새롭고 의의있는 사실, 사건들을 광범한 대중에게 신속정확히 알려주는데 있다.

출판보도물은 원래 새로운 소식을 광범한 대중에게 재빨리 알려주는것으로써 사회와 대중에게 이바지하여왔다. 새롭고 의의있는 사실, 사건들을 광범한 대중에게 신속정확히 알려주는데서 출판보도물보다 더 위력한 수단은 없다. 어느 시대, 어떤 성격의 출판보도물이든 새 소식을 알려주는 보도적기능을 떠나서는 존재할수 없다.

일반적으로 보도라고 할 때 그것은 그 무엇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빨리 알린다는 뜻을 담고있다. 물론 개인들사이에도 통보, 서신거래를 통해 새로운 소식과 안부같은것을 전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보도라고는 하지 않는다.

보도는 한정된 개인간이나 소집단들사이의 소식거래가 아니라 광범한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공시성, 공표성을 띠는 소식전달을 말한다. 보도는 반드시 출판보도물이라는 위력한 수단을 통하여 전달될 때 그 가치를 가지게 된다.

출판보도물은 이처럼 국내외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새로운 소식, 새로운 사실, 사건들을 신속정확히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이 견문을 넓히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기 위한 활동을 주동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는데 큰 작용을 한다.

새 소식이라고 할 때 그것은 두가지 의미를 담고있다.

새 소식은 첫째로, 시간적으로 새롭게 발생한 사실, 사건이어야 하며 둘째로, 사람들의 자주성실현에 유익하고 관심사가 되는것이여야 한다.

당과 인민대중이 혈연적으로 굳게 결합된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의 주되는 관심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과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눈부신 기적과 혁신, 날로 높아가는 공화국의 대외적권위에 대한 소식으로 쏠리고있으며 우리의 출판보도물들은 바로 여기에 자기 활동의 중심을 두게 된다.

사람들이 관심하는 문제,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제들을 위주로 하여 보도선전을 진행해나갈 때 우리의 신문, 방송은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받을수 있다.

보도선전에서 친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누구나 다 이해할수 있게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보도선전은 주입식이 아니라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대상의 수준과 능력, 성격, 취미에 맞게, 알기 쉽고 흥미있게 하여야 한다. 기사, 편집물을 알기 쉽게 통속적으로 만드는것은 광범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보도선전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원칙적문제이다.

신문, 방송은 특정한 일개 계급이나 계층을 위해서가 아니라 광범한 대중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지는 대중보도물이다. 기사, 편집물의 수준을 높인다고 하면서 절대다수 근로자들이 알아들을수 없는 전문용어나 외래어, 한자를 써가며 기사, 편집물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기사, 편집물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것은 대중에 대한 복무정신이 없는 표현이며 그것은 우리 신문, 방송의 선전교양자적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오늘 우리 신문, 방송들에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보도선전의 친절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방도들이 적극 탐구활용되고있다.

출판보도선전에서 신뢰성과 친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이와 함께 기자, 언론인들을 우리 당의 출판보도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야 한다.

출판보도부문 연구토론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당적출판물들이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는 친근한 벗이 되도록 하기 위한 독자모임제도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출판보도물들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종합하여 취재 및 편집사업에 구현할 때 출판보도물들이 인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의 사랑을 받는 생활의 길동무로 될수 있다.

보도선전에서 신뢰성과 친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출판보도부문 일군들과 기자, 촬영가들의 창작기풍, 창작태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모든 기자, 편집원들은 기사, 편집물창작에서 인민들이 좋아하고 즐겨 보고 듣는 기사, 편집물을 창작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들끓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몸을 잠그고 현실에서 큰 은을 나타내고있는 단위들과 그 일군들이 투쟁에서 종자를 찾아쥐고 생동하고 실감있게 작성하도록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여 보도선전의 실효를 적극 높여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중요부문을 비롯하여 인민들이 바라는 문제가 실현되는 단위들에 내려가 인민들의 목소리에서 문제성있는 종자들을 골라잡고 속도전을 벌려 풍만하고 생동한 기사, 편집물들을 창작완성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기자, 편집원들은 인민들이 즐겨 기다리고 힘과 용기를 받아안을수 있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기사들을 더 많이 써냄으로써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여야 할것이다.